



CHEN Yufan

미술가 천유관(陈彥凡)

“중국은 단시간에 성장 이루며, 동시에 많은 것을 잃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21세기에도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한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사람은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 미술가 천유관 역시 그렇다. 그는 급변하는 중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고향 푸지엔(福建, Fujian)을 떠나 상하이(Shanghai)에서 작업하고 있으며, 현대화에 따른 이주자들이 겪는 감정과 경험을 작품에 반영한다. 작가는 자신의 삶을 어떤 힘으로 굴러다니는 돌(a rolling stone)에 비유하며, 이주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창조하고 있다.

글 이소영 프리랜서 기자



1, 2 고향에서 가져온 용안 나무 가지를 쌓아 올린 작품 '롤링 스톤'. 나뭇가지 틈으로 '정체성' '정부' '집값' '거주지 등록'과 같은 단어들 삽입했다.

Q 당신의 작품 세계를 잘 모르는 독자를 위해 최근 작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A 2018년 아라리오 뮤지엄 제주 개인전에서 선보인 '롤링 스톤'은 고향에서 가져온 용안 나뭇가지를 거대한 돌무덤처럼 쌓아 올린 작품입니다. 나뭇가지 틈으로 '정체성', '정부', '집값', '거주지 등록'과 같은 내가 대도시에서 처음 마주한 생경한 단어들을 네온으로 만들어 삽입해 빛나게 했습니다.

'화일(化一)' 연작은 용접 기계로 캔버스 천을 한 점 한 점 태우기를 수천 번 반복한 작품입니다. 작은 점은 시간과 역사를 담고 있으며, 이렇게 점을 만드는 행위는 현대 미술 작가의 예술적 수행으로 해석할 수 있지요.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며, 동시에 많은 것을 잃기도 했기 때문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Q 고향 푸지엔에서 돌과 나무를 가지고와 작품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A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이 작품의 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장난감도 많고 놀 것이 다채롭지만 우리 어릴 적에는 자연을 벗삼을 수밖에 없었지요. 돌과 나무와 함께 노닐

던 그 시절이 그리웁습니다. 푸지엔은 붉은색을 띤 용안 나무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래서 종종 고향에 가 용안 나무를 가지고 와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가지고 온 돌도 즐겨 사용합니다. <롤링 스톤>, <보이스 오브 아시아> 전시에서는 하나의 큰 돌을 사용했었어요. 요즘은 작게 분산된 돌을 사용하고 있어요. 개혁개방을 통해 많은 중국인이 말레이시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나 역시 나라를 옮기지는 않았지만 푸지엔에서 상하이로 이동하며 다른 형태의 이동을 했지요.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생활하는 이주민 개인에 대한 생각을 작품에 표현하기 위해 작은 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돌을 사용하고 돌에 연민을 느끼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푸지엔에 아주 큰 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명당이라고 부르며 휴식을 취하고 공유해왔는데, 개혁개방 시기에 건물을 짓느라고 산산이 부숴버리고 말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 돌을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Q 유명 미술가인 동생 천유준(陈彥君 Chen Yujun)과 따로 또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차이에 관해서 설명해주세요.

A 둘 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동생과 함께 하는 작품이나 혼자 만드는 작품은 아예 다릅니다. 미술가로서 완전히 다른 독창성과 의미가 필요하지요. 미술가도 사람이다 보니 성격도 드러납니다. 천유준은 외향적인 성격이고, 회화와 같은 평면 작품을 만듭니다. 나는 내향적 성격이고 설치 작품과 같은 입체적 작품을 주로 만듭니다. 생각이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다 보니 서로 이야기하며 업무를 분담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어야 하지요. 각자 개성을 살리면서도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3살 차이 나는 형제로서 우리는 둘 다 미술가이지만 경험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비슷한 주제어도 서로 배우고 교류할 수 있고, 의견이 충돌하기보다는 서로가 동반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요즘 세계적으로 '이주', '난민', '경계'라는 키워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미술가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클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A 물란 강은 고향 푸지엔의 강입니다. 대표작 중 하나인 '물란 강' 시리즈는 1960~197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를 겪으며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회의 공백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특히 난민 문제는 내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관람객과 소통하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는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이에 공감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1980~1990년대 개혁개방 시기를 겪으며 자랐기에, 마음 깊은 곳의 주제가 된 것도 바로 이러한 현대화에서 비롯되었지요.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문명은 발전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회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에 순응하고 살지만, 삶과 작품에 사회 변화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요.

나는 정치가가 아닌 예술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사회 변화를 작품에 반영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2014년에 만든 조형물 '떠다니는 나무'
2 2018년 열렸던 아라리오뮤지엄 제주의 개인전 <롤링 스톤> 전시 풍경

난민과 내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감정은 공통점일 것입니다. 내가 고향을 떠나 큰 도시로 온 것은 더 큰 발전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 다르겠지요. 하지만 항상 고향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어, 예술가로서 동기 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나는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직도 밤마다 고향 꿈을 꾸니다. 고향에서 가장 그리운 것은 여름에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나무 아래에 앉아 야채를 먹고, 농번기에 함께 일하다가 밥 먹고 쉬고, 어르신에게 옛날이야기를 들었던 추억이지요.

Q 당신이 표현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이상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A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총체적 그리움은 유토피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고향, 문화 유산, 중국 고유 문화와 같은 것도 포함하지요. 문화대혁명 시기에 불타 없어진 고대 서적과 미술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로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향수입니다.

Q 현대인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 이외에 당신이 관심 있는 또 다른 주제는 무엇입니까?

A 예술가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한 자리에 자리 잡은 뿌리가 있으며, 방향은 다르지만 여러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가지들이 있지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외에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사회 현상들입니다.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나에 대한 성찰과 사고를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나와 사회를 돌아보고 있으며 모든 것이 내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현상을 열린 마음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3 천유판은 미술가가 되기 위해 고향 푸지엔을 떠나 상하이에 자리잡았다. 상하이 외곽에 자리 잡은 작가의 아틀리에 전경
4 2015년에 만든 작품 '피안'(On the other side)

Q 작품 세계에 영향을 준 미술가나 인물이 있습니까?

A 특별히 영향을 받은 우상은 없습니다. 내 또래 중국인들은 마오쩌둥을 존경하곤 합니다. 나는 1973년생인 치링허우(七零后·1970년대 태어난 사람)이지만 특별히 존경하는 미술가는 없습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이 가장 중요하합니다. 특별한 예술가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니다. 예술가보다는 문학, 사상, 사회 현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만약 우상이 있다면 작가로서의 작업 범위와 생각이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롤모델의 작품 세계를 공부하고 참고한다면 오히려 넓은 생각을 갖는 것에 방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을 갖기보다는 항상 공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배 미술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Q 그간 중국뿐 아니라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등에서도 전시를 가졌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에 대한 각 나라의 평가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습니까?

A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에 다들 공감합니다. 특히 특수한 사회 배경을 가진 이스라엘에

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주'라는 주제에 대해 민감한 민족이기에 더욱 공감을 얻었습니다.

Q 상하이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국제적 예술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브드 아트&디자인, 아트 021, 상하이비엔날레 등의 미술 행사 등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중견 미술가로서 중국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중국 정부의 막강한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로서는 이런 미술 행사들이 정부가 미개발 지역을 저렴하게 사들여 개발하고, 예술을 통해 부동산과 협업해 집값을 올리며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술 지원이 예술 생태계 개발과 미술가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예술 시장의 역사가 길지만, 중국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작가의 창작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미술 시장이 활성화되었다고, 작가의 작품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예술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해도 예술 생태계 발전과 창작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Q 예술가와 예술 작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검열이 아직도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A 검열은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겪은 적은 없습니다만, 중국 작가에게 시행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전시하는 외국 작가들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 국적 미술가로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예술은 자유로운 행위이며, 이런 제재가 있다는 것이 보편적 현상은 아닙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

그가 2007년부터 작업하고 있는 <물란 강> 시리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7년에는 이스라엘미술관에서 동생 천유판과 공동 전시를 했고, 2019년에는 상하이 아시아 컨템포러리 뮤지엄에서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물란 강> 시리즈는 아직 한국에서 전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 선보이고 싶은 바람이 있기도 하다. 언제나 새로운 진화를 추구하지만, 개인전 <롤링 스톤> 이후 작품 세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전에는 내면의 생각과 자아를 표현했다면, 지금은 사회와 연결한 방식으로 내면을 표현하고 싶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점차 단계적으로 중국 현대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작품화하고 싶다고 하니 기대할 만하다. 세계 미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큰 손으로 성장한 중국 미술계의 급격한 발전은 천유판 작가와 같은 중견 미술가들이 만들어 낸 나비 효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